부산상공회의소

보 도 자 료

【보도일시】
2026년 6월 17일(수) 배포즉시

담당 : 기업지원본부 전종윤 과장
(051-990-7063)

제283차 부산경제포럼 개최

미국·이스라엘-이란 전쟁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

▶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성일광 교수 초청 강연에 지역 기업인 등 200여 명 참석

부산상공회의소(회장 양재생)는 17일(수) 오전 7시, 부산롯데호텔에서 '미국·이스라엘 - 이란 전쟁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'이라는 주제로 제283차 부산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.

오늘 포럼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과 신한춘, 이수태, 문창섭, 장호익, 박사익, 이오선 부회장과 김영득, 권기재 감사가 참석하였고, 이 외에도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, 김성주 BNK부산은행장, 민필규 KBS부산총국장 등 주요 기관장과 지역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.

강연을 맡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성일광 교수는 미국·이스라엘-이란 전쟁 이후 급변하고 있는 중동 정세와 국제질서 재편의 흐름을 심층 분석하면서, 트럼프 2기 행정부의 '원칙 있는 현실주의' 외교 노선과 국방전략(NDS)이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진단했다.

성일광 교수는 강연에서 "미국·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었지만, 이번 사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"라며, "기업들은 적기 생산(JIT)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망 다변화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회복력을 높이는 안티 프레질(Anti-Fragile)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"최근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재편, 에너지 안보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큰 변화를 겪고 있다"면서, "오늘 강연이 최근 중동 정세 변화와 국제질서 재편의 흐름을 이해하고, 지역 기업들이 미래 경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"고 강조했다.

포럼에 참석한 한 지역 기업인은 “전쟁은 일단락됐지만,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, 물류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” 면서, “이번 강연은 향후 에너지 시장과 통상환경 변화를 전망하고, 기업 차원의 대응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” 는 소감을 전했다.